

한글손편지

윤봉길 의사님, 반갑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잘지내고 계
시죠? 저는요즘 누나와 박물관에 다니다 좀 바빠요.
양재 시민의 숲 <윤봉길 의사님 기념관>에도 다녀
왔어요. 가기전에 의사님 책도 읽고 역사공부도 하고
쓰어요. '하인마켓'에 들어가서 사진찍으신 것처럼
저도 기념관에서서 목에는 선물을 걸고 손에는 수첩
과 권총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기분이 마치 의사님과

중국 흥취우 공원에 있는것 같아요.
저는요, 의거전에 김구선생님과 시계 바꾸시는 장면
이 제일 슬펐어요. 의사님께 남은시간이 한시간
밖에 남지 않았을 의사님의 새 시계와 바꾸자고
하시는 말씀이 의사님의 소중한 목숨과 시간을 우리나라에
선용하시는것 같았어요. 폭탄이 터져 붙잡혀 가는
장면에서 접이났어요. 그워커로 신문에도 나오고
전세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독립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리셨어요. 윤봉길 의사님 같은 독립운동가
분들 덕분에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어
너무고맙습니다.
자랑스럽 습니다.♡

